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하늘에는 이름 없는 성인이 없습니다

세상이 잊은 이름들을 하느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 한 방울,
상처 속에서도 내밀었던 용서의 손길,
어둠 속에서 끝내 꺼뜨리지 않은 작은 사랑까지.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품에 안으시고
"행복하여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인들이 걸어간 길은 먼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영원한 하늘의 빛이 시작됩니다.
이웃에게 내민 두 손이 당신께 닿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부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 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하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11/01/2026 기준
현재 기부 금액 - $34,265
현재 참가 인원 - 78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성가 : 294 예물준비 성가 : 220, 226 성체성가 : 174, 176 파견성가 : 77

연중 제30주일 (10/25)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9명	57명	197명	157명	45명	505명

에디트 슈타인 – 2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 낸 봉헌의 삶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된 에디트는 1923년부터 1931년까지 슈파이어의 도미니코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기도와 교육, 학문 연구는 그의 일상 안에서 함께 이어졌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을 번역하고 그리스도교 사상과 현대 철학의 만남을 모색하면서, 학문 역시 하느님을 섬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1932년에는 뮌스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나치가 집권하면서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유다인들을 향한 차별과 박해가 거세지는 현실 앞에서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신앙을 받아들인 뒤에도 유다인으로서의 뿌리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 그의 삶에 깊이 남아 있었다.

에디트는 오래전부터 품어 온 수도 생활의 소망에 따라 1933년 쾰른의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했다. 이듬해 착복하면서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다.

수도원에서도 그의 학문적 탐구는 계속되었다. 그는 기도와 공동체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교 철학과 영성을 연구했고, 『유한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와 『십자가의 학문』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에게 십자가는 연구의 대상이면서, 온몸과 영혼으로 살아 내야 할 신앙의 길이었다.

박해가 심해지자 에디트는 1938년 말 네덜란드 에히트의 가르멜 수도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 주교들이 유다인 박해와 강제 이송에 항의하자, 나치는 보복으로 가톨릭 신자가 된 유다인들을 체포했다. 에디트도 1942년 8월 2일 언니 로자와 함께 체포되었고,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어 같은 달 9일 살해된 것으로 전해진다.

에디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생명과 죽음을 하느님께 맡기고자 했다. 그는 자기 민족과 독일의 구원, 세상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봉헌했다. 이는 박해와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려는 결단이었다.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성실한 헌신이다. 철학에서 시작된 탐구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안에서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삶 전체를 내어놓는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에게 신앙은 질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힘이었다.

에디트 슈타인의 영성은 고통 자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자신의 뜻과 욕망을 비우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며, 고통받는 이들과 끝까지 연대했던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찾는 진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공지 사항

1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11월 23일은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모든 신자가 함께 영적, 물적 봉헌을 하고자 합니다. 성당 로비에 봉헌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신자 여러분은 준비된 용지와 봉투에 봉헌 내용을 담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 기간 : 10/17 – 11/15
- 봉헌일 : 11/22(주일) 오전 10시 미사 중

2 미사 안내

A. 위령 성월 묘지 미사
- 일시 : 11/2(월) 오후 1시
- 장소 : 홀리루드 묘지 소성당

B. 다민족 공동체 수호성인을 위한 미사
- 일시 : 11/7(토) 오전 11시
- 장소 : St. James Cathedral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달 성모 신심 미사는 없습니다.**

C. 재외동포를 위한 초청 공연 관계로
11/19(목) 오후 7시 미사가 오전 10시로 변경.

D. Thanksgiving Day 관계로
11/26(목) 오후 7시 미사가 오전 10시로 변경.
***모든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Shoeboxes of Joy 2026

대건회에서 Shoeboxes of Joy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목록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기한 : 11/15(주일)

4 재외동포를 위한 초청 공연 안내

- 일시 : 11/19(목) 저녁 6시 30분
- 공연 : 컨템포디보(팝페라 보컬 그룹)
- 주최 : 시애틀 총영사관 & 광역 시애틀 한인회
- 주관 :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음식 봉사

A
- 음식 봉사 : Mukilteo/ Everett
- 일시 : 11/1(주일) - 구역의 날
- 메뉴 : 우거지 배춧국

B
- 음식 봉사 : Bellevue
- 일시 : 11/8(주일)
- 메뉴 : 떡만두국

6 한국학교 교사, 보조 교사 모집

성 김대건 한국학교 2026–2027학년도 교사 및 보조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 : sakks10@gmail.com

7 성탄 미사 Chamber 단원 모집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와 25일 성탄 미사에 함께하실 Chamber 단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 : 11/14(토)까지
- 문의 : 송 요안나 425.445.1230

8 2026 말씀 축제

- 주최 : 미주 가톨릭 성서모임 (서부)
- 주제 : 루카 복음사가의 나자렛 이야기 (루카 1-4장)
- 일시 : 11/6(금) 저녁 7:00 – 9:40
  11/7(토) 오후 1:00 – 4:00
  11/8(주일) 오후 1:00 – 4:30
- 강사 :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님 (과테말라 천사의 집)
- 장소 : Zoom
- 회비 : $30
- 문의 : 이도연 제네비에브 206.240.3248

9 미사 반주자 모집

하느님을 찬미하며 미사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해 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실 교우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부문 : 평일 미사, 토요 저녁 미사 반주자

문의 : 반주단장 김로사 425.442.7255

입당송

주님 안에서 다 함께 기뻐하세.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축제를 지내세. 천사들도 이 큰 축제를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 묵시 7,2-4.9-14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답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제2독서 ····· 1요한 3,1-3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복음 ····· 마태 5,1-12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경자 이지연 지유선 최혜경 이근영 안승근 천기전 소재은 이정인 유주연 정해영 김영환 이경원 차상철 강승호 최성실 강승자 조선기 이승호 박명완 구미경
[교무금 Push Pay] 안정희 박주원 김형근 성효진 유현주 이상철 황현선 윤성욱 장경화 오영주 배정규 채솔이 정재열 강철권 윤법영 이종일 주성택
[감사헌금] 정순도 익명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2차 헌금(World Mission Sunday)	감사헌금	-
$6,059.00	$7,280.00	$4,303.66	$1,695.00	$25.00	-

판공성사 안내

2026년 성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판공성사는 주님의 자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역	날짜	시간	장소
Lynnwood	11/ 7(토)	4:00 PM	성당
Mukilteo	11/20(금)	5:30 PM	구역 가정
Shoreline / Mill Creek	11/21(토)	11:00 AM	성당
Bothell	12/5(토)	3:00 PM	구역 가정
Seattle	12/10(목)	7:00 PM	구역 가정
Sammamish	12/11(금)	5:30 PM	구역 가정
Bellevue	12/12(토)	4:00 PM	구역 가정
Redmond	12/19(토)	4:00 PM	구역 가정

성탄 한마음 잔치 공연 신청

다가오는 성탄을 맞아 우리 본당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탄 한마음 잔치**를 개최합니다. 한마음 잔치 공연을 빛내주실 개인 및 단체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기한 : 11/15(주일)까지
- 신청 방법 : 사무실 앞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신청 대상 : 공연에 참가할 본당 내 모든 개인 및 단체
- 문의 : WYD 준비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425-786-4082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6-27년도 주일학교 & Youth Group 학생 등록

26-27년도 Faith Formation(주일학교)와 Youth Group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시애틀 대교구의 명칭 사용에 맞추어 영어 명칭은 Sunday School 대신 Faith Formation이 사용됩니다.

- 주일학교 & YG 시작 : 10/11(주일)
- 등록비 : 1명 $120 / 2명 $220 / 3명 $300
  4명 이상 학생 1인당 $100

★ 3학년 : 첫영성체 준비
★ 7-8학년 : 2년 과정의 견진성사 준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9-12학년 : Youth Group(임시 운영)
추후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일학교 문의 :
  장우혁 유스티노 (whyeok.jang@gmail.com)
  박지윤 레이나 (reina.park1011@gmail.com)
- YG 문의 :
  김형석 그레고리오 (h.greg.kim@gmail.com)

등록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알현]

교황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주제로 한 연속 교리 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알현에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에 관한 일곱 번째 교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신자들이 "자기 시대의 사람들과 매우 긴밀하게 결합하여" 살아가고 그들과 소통하도록 권고하는 사목 헌장의 가르침을 거듭 강조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듯이, 신앙 또한 육화된 실재이며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와 긴밀히 얽혀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환경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
일반 알현
성 베드로 광장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IV.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7. 신앙과 문화의 관계 (GS, 53-62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의회는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이하 GS)의 제2부 제2장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한편, 여러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여 전 세계 남녀가 인간적·문화적·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힘써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세의 대학들은 교회의 품에서 탄생하였으며 서양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습니다. 동시에 문화와 지식의 진보는 언제나 새롭고 더욱 깊은 질문들을 제기하며,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밝히도록 자극합니다(1베드 3,15-17 참조). 끝으로, 문화의 다양한 표현들은 인간의 영적 차원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들은 세상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관한 끊임없는 물음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신앙과 문화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강생의 신비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면(요한 1,14 참조), 신앙 또한 육화된 실재이며,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신앙은 또한 문화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와 전통, 종교적 감수성, 예술과 시, 사상과 과학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생활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기꺼이 되풀이하셨듯이, "문화로 구현되지 않는 신앙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충분히 숙고되지 않으며, 충실하게 실천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문화와도 그 자체를 동일시하지 않기에 모든 문화 안에서 육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문화 안에 깃들어 그 내면에서부터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것으로, 사랑과 봉사,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녀다운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육화하고 전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문화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 사명을 지닙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백성에게 파견되었으므로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에든, 또 어떠한 특정 풍속이나 고금의 어떠한 관습에도 불가분의 배타적 관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보편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 형태의 문화와 교류할 수 있으며 또 그 교류로 교회 자체도 여러 문화도 풍요로워집니다"(GS, 58항).
교회는 문화가 그 자체로 선이며, 인간과 이 세상에서의 인간 소명 완수를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문화를 북돋워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쁨과 희망」은 국제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 문맹과 교육 기회의 부족을 극복하도록 권고합니다. 공의회는 용기 있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는 모든 이가 실제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고유의 필요한 문화생활 참여를 인정하고 증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GS, 60항).

아울러 「기쁨과 희망」은 생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교육이 지식의 통합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GS, 61항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계시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적·문화적 소양을 쌓아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 관한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신앙의 내용과 나란히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내용은 나이가 들고 학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끊임없이 더욱 깊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의회는 신학자들에게 특별한 호소를 건네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학에 종사하는 이들은 [...] 다른 학문에 출중한 사람들과 함께 힘과 뜻을 합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신학 연구는 동시에 계시 진리의 깊은 지식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학문을 연마한 사람들이 더욱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지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동시대와 교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GS, 62항).

형제자매 여러분,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은 우리가 세상과 문화, 그리고 문화가 낳은 인간적 표현들을 대립이나 적대의 정신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동시대 사람들과 매우 친밀하게 살며 문화를 통하여 표현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각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GS, 62항). 실제로 신앙과 문화 사이에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종합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꾸준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일 뿐 아니라, 세상에 신앙을 증언하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

[1]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회 문화 운동(MEIC) 전국 대회 참가자들에게 하신 연설」, 1982년 1월 16일.
번역 박수현